

무주군, 국비 확보 '사활'

황정수 군수,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주요 사업 국비 요청

황정수 무주군수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일 국회를 방문한 황 군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을 만나 2018년도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만난 황 군수는 지역의 발전과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 태권마을 조성사업(2018년도 국비 요구액 10억 원)과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국도 건설(2018년도 국비 요구액 50억 원), 그리고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2018년도 국비 요구액 5억 원)이 절실하다며 2018년도 국비 필요 분 총 65억 원을 요청했다.

황 군수는 "2017 무주WTF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온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원 활성화는 대회 성공에서 시작해 결국 주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데서 완성이 되는 만큼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태권도가 무주와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2017 무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오늘 의견을 나누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황정수 군수가 견의한 태권마을 조성사업(2018년 2월 공사 발주 예정)은 문체부 용역을 통해 수립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의 하나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



2일 국회를 방문한 황정수 무주군수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태권마을 조성사업 등 2018년도 국비 필요분 총 65억 원을 요청했다.

원을 투입(국비 43억 원)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원로 태권도 사범들이 귀국하면 수련생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공간(힐링 체험 특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내의 대회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380억 원이 투입(전액 국비)되며 무주군은 2018년 2월부터 추진되는 보완설계와 토지보상 등 사업 착수를 위해 이날 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안성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배수지 조성 등 사업비

180억 원(국비 126억 원)이 소요된다. 군에 따르면 2018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필요분이 5억 원이다.

이외에도 무주군이 2018년도에 추진하는 국가예산 신규 사업은 전통한문 화제향단지조성 등 총 40건(총 사업비 3,877억여 원 중 국비 3,163억여 원)으로, 황 군수는 이날 안호영 국회의장을 만나 "2018년도 국비로 요구하는 306억 원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잘 헤아려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검토돼 반영될 수 있도록 결에서 지원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논 매는 상머슴 데려 가세요!'

진안 백운면, 우렁이농법 이색홍보 논길

진안군은 민선6기 아삼차게 시작한 '벼 우렁이 농법' 추진에 백운면이 '논 매는 상머슴 데려 가세요!'라는 이색 홍보로 지역 농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백운면은 2017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이 2월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왕우렁이 농법 신청 접수와 동시에 추진하여 한 달 여만에 275ha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는 올해 목표면적인 340ha의 약 80%에 해당하는 성과다.

진안군은 그동안 벼농사는 주로 제조제를 사용해 왔으나 이 농법으로 전환하면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효과적인 잡초방제로 1석 2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와 생

태계 보전 등이 절실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농가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행 농법을 고수하는 농가, 제조 효과를 의심하는 농가 등 기타 사유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농가들이 일부 남아 있다.

황명선 면장은 "신청을 망설이는 농가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개별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해 우렁이농법 실패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농민 상담소와 연계하여 수시 현장지도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17년도 첫 번째 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의장 최용득군수)가 2일 오전 11시 통합방위 위원 및 군경 관계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대남도발 정세에 대한 안보동영상상을 시청하고, 2017년 통합방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017년 KR/FE(키리졸브 훈련)계획 보고 및 통합방위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 43-1에 위치한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을 3월부터 12월까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할 계획이다.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문의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지원팀 ☎ 063-320-364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10ha 조림사업 시작

진안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조림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벼제지, 공한지, 생활권 주변 210ha에 경제수종과 밀원수종 46만8,000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산지 특성과 조림목적에 감안하여 경제수 76ha, 밀원수 87ha, 큰나무 32ha, 유희토지 조림 10ha, 특용자원 조림 5ha를 조림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강소농 교육 실시

진안군은 2일 농업인의 자율·자립 역량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2017 강소농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강소농교육 신청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일과 3일 1박2일 동안 부안 농협변산수련원에서 심화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개인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강소농가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과 변화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여 경영 개선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3월 이후 강소농교육은 경영기본 개념, 경영계획서와 실행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배운 교육내용의 체질화로 품목·생산·가공·유통·마케팅 등 돈 버는 농업기술실천, 자율모임체 운영, 현장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9일까지 모집

무주군이 9일까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1명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환경정화를 비롯해 추모의 집 관리, 봉사도움미 지원 등 44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종사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군민으로, 각 읍면 사무소 공공근로사업 업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시간당 단가는 6,470원으로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과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취업지원사업은 만 25~39세 미취

업자 5명에게 1인당 월 50~8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 하는 것으로,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추가비용 계획이 있고 월급이 160만 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4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중장년 취업지원(6명 지원)은 만 40~59세 미취업자에게 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중 추가비용 계획이 있고 월급이 140만 원 이상 지급이 가능한 업체 1곳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면 무주군 산업경제과 일자리 담당부서로 방문, 우편, 이메일(biga6088@korea.kr) 접수하면 된다. (문의 : 320-2383)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청년인턴에게 매달 100만원 지원

청년인턴 6명·협력 공동체 6개소와 청년인턴 지원 협약식 가져

▲완주군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창업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취업하는 경우, 매달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군은 2일 박성일 완주군수와 청년인턴, 공동체 대표 등 13명이 함께한 가운데 청년인턴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군의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지역에 관심과 재능있는 청년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취업하게 될 경우,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해당 공동체에 지원하고, 공동체에서 30% 이상을 자부담해 최

소 150여만원의 인건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턴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군이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 2월 청년인턴과 협력 공동체를 공모해 6명의 청년인턴과 6개소의 협력 공동체를 선발한 바 있다.

현재 완주군에는 협동조합(68/41 개소), 사회적 기업(5개소), 마을공동체(53개소), 지역 창업 공동체(40개

소), 청년 창업공동체(5개소), 로컬푸드 직매장(12개소) 등 사회적경제 기반조직 18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재능있는 청년들이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꿈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공동체에는 고급인력이 지원되는 1석2조의 효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완주군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이서 지역사회보장협의, 농어촌희망재단 공모 선정

완주군 이서면은 2일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7년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지원 단체로 선정돼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이다.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서면 원도심과 혁신도시 신도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행복지수 Up! 복지체감 Up!'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감사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받아 아동·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분야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통해 교육·문화·복지 사각지대인 주민들의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 13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2017. 3. 11(토) ~ 3. 12(일)
-진안 주천면 윤일암반일암 삼거광장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